

마련일세. 사람을 악하다 믿으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, 친절하 척 위신을 떨면서 악한 이들에 대한 증오를 감추지 않는다면 그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지. 이렇듯 험담은 타인에게든 우리 자신에게든 해를 끼칠 수밖에 없게 만든다네. 그러나 이 두 가족은 사람 하나하나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, 그저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신행을 베풀 방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어. 비록 그럴만한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의지만큼은 한없이 강한 그들이었기에, 마음속은 늘 바깥세상을 향해 뻗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호의로 가득했다네. 그래서 두 가족은 은둔하듯 살아가면서도, 사교성 없이 무례하게 굴기는커녕 더 인정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지. 주문 가득한 세간의 이야기는 그들의 대화에 어떤 소재거리도 되어주지 못했던 반면, 자연에 관한 이야기는 황홀과 환희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어. 두 가족은 자연의 섭리가 자신들의 손을 빌려 내비치는 권능을 열렬히 찬미했던 바, 그것은 이 척박한 바위땅 한가운데로 풍요와 은총과 순수한 즐거움을, 끊임 없이 되살아나는 소박한 즐거움을 퍼뜨려주었다네.

풀은 열두 살 때 이미 열다섯 정도 된 유럽 아이들보다 더 건장하고 더 똑똑했으니, 흑인 도맹그로서는 그저 땅을 갈아 농사짓는 것밖에 모르던 곳을 더 아름답게 꾸며줬다네. 그 아이는 도맹그와 함께 이웃 숲으로 가서 어린 묘목들을 뽑아오곤 했는데, 레몬나무며 오렌지나무며 타마린드